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884969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Open Doors(등록번호 성목 라 0006) 부록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 42장 9-10절)

아시아(Asia)

1일(금) 북한(North Korea)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굶주림
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우리의 동포들이 이미 3만명이 넘습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 적응 훈
련과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되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다른 환
경과 체제 속에서 70년 넘도록 분리되어 살아오며 커져버린 이질감
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실리적 불안감, 영
적인 공허함과 건강 악화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탈북민들
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일(토) 북한(North Korea)

김정은의 방중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체포와 복송이 더욱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휘둘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을 생
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탈북자들과 그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
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3일(일) 네팔(Nepal)

네팔 정부의 규제 강화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모금, 설립, 사회

참여가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은 개종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
역을 못박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
다. *네팔 내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기도해주세요. 하
나님을 적대하는 네팔정부와 관료에 변화의 새 바람이 일도록 기도해
주세요. (5월호 동일)

4일(월) 부탄(Bhutan)

1990년 이후 부탄 내 기독교에 대한 규제는 다시 강화 되었습니다. 기
독교인이 증가하자 국가는 개종과 서구식 민주주의 때문에 잠재적으
로 사회가 불안정 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부탄인은 시민권을 잃을 뿐 아니
라, 무상교육, 의료 서비스, 일자리, 심지어 전력과 수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집단 괴롭힘과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부
탄 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일(화) 라오스(Laos)

국민의 80%가 자급형 농업에 종사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기업 민영
화 정책 등으로 경제 성장에 힘쓰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마약 중독자
증가로 경제 발전이 더욱 더딘 상태입니다. 5,000개의 불교 사원에 비
해 교회 건물은 250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라적으로 교회 신축을
방해하고, 기독교인에게 지역 주민과 정부는 위협을 가합니다. *정부
의 박해 때문에 가정교회로 흩어진 라오스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인내
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6일(수) 중국(China)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는 보도
가 있었습니다(5월 10일). 새 법률안은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
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
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기독교
NGO의 안전과 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7일(목)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은 자국민의 기독교 개종을 금지하고 있
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벗어난 사고 방식조차 모두 반역죄로 여겨집니
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쫓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
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월호 동일)

8일(금) 미얀마(Myanmar)

군사정권은 기독교(“C 바이러스”라고 부른다)를 제거하려고 애쓰지
만, 복음은 계속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보통 권력이나 영

향력 있는 자리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기독교 소수자를 박해하는 군
사 활동은 공개적이며, 지난 10년간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불
에 탔고, 교회는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1966년부터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가 추방되
면서 신생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나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채로 남겨졌
습니다.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고립에 굴하지 않고 견
뎌낼 뿐만 아니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일(토) 방글라데시(Bangladesh)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빈민 대상 소액대출 해
택을 받는 가계가 80%가 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교회는 인구 성
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종족 단위로 회심이 일어
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극우파에 의한 기독교
인과 기독교관련 건물에 대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취약한 힌두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기
도해 주세요.

10일(일) 몰디브(Maldives)

아름다운 경관 그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 규
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세계에서 이
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이 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사건도 많고, 10대의 70%가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사회는
병들어있습니다. *몰디브인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조롱과 배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리카(Africa)

11일(월) 에리트레아(Eritrea)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악명을 떨치는 나라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
하는 것이 흔하고, 교회 금지법에 따라 복음주의 핵심 지도자들은 수
감되었습니다. 뒤이어 목회자, 사회 곳곳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자,
최근에는 평신도까지 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만 3,000명
넘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기독교
인이 강건하게 은혜 안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일(화) 나이지리아(Nigeria)

샤리아법(Sharia,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 되는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
의 기독교 학생들은 지방 정부와 공공 기관으로부터 교육, 의료, 복지
와 같은 기본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교육의 권

리에서 배제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오픈도어는 2005년부터 4개 주에서 상황에 맞게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부자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과 배제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13일(수) 콩고(DRC)

이슬람무장민중연합단체는 북부 키부(Kivu) 지역의 대다수 기독교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을 활동 거점으로 삼는데 성공했으며,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지역의 교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부 키부 지역 및 콩고의 모든 지역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콩고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4일(목) 카메룬(Cameroon)

미망인 샤리파(Sharifa)는 8명의 아이들과 함께 5년전 목사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보코하람(Boko Haram)무장 세력이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였습니다. 순교자의 아내 샤리파가 두 가지 기도제목을 요청해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들수 있도록,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5일(금) 케냐(kenya)

플라니족은 99%가 무슬림인 유목 민족으로, 주로 나이이지라, 말리, 기니, 카메룬, 니제르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가장 열렬한 극단적 이슬람교도이기도 합니다. 12세에 소녀는 결혼을 하며, 일부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고통 당합니다. 이 종족 내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통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이 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여인의 기도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종족 가운데 비추이기를 기도해 주세요.’(5월호와 동일)

16일(토) 나이지리아(Nigeria)

단방고(Danbango) 지역 기독교인 중, 자신이 소유한 농장을 몰수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가족들을 먹이고 입힐 방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7일(일) 소말리아(Somalia)

수년간의 전쟁과 무관심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 · 사회적 ·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 입니다. 75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

되었고, 전쟁으로 50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특히 과격 이슬람 때문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들을 양산했고, 취약 계층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질서와 안정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과격 이슬람 세력이 무력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8일(월) 카메룬(Cameroon)

50대 여성 하자라(Hajara)는 악명 높은 무슬림 엠보로로족(Mbororo)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자라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9일(화) 지부티(Djibouti)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지부티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예멘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들 사이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지부티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인 수니파(Sunni)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배경신자들은 가족과 지역사회 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숨죽여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배경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0일(수) 북 아프리카(North Africa)

아프리카 북부는 알샤밥(Al-Shabbab)과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득세로 수년간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 보고에 의하면 보코하람으로부터 8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 당했습니다. *사하라사막 이남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이 초토화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무장 세력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21일(목) 수단(Sudan)

누바(Nuba) 산 지역에는 많은 교회 공동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호 단체의 노력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약과 모기장, 식료품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동(Middle East)

22일(금) 레바논(Lebanon)

작은 나라 레바논에는 시리아, 이라크 그 외 많은 나라들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빈곤과 배고픔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많은 난민들에게 궁핍과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레바논의 경제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3일(토) 시리아(Syria)

250,0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3의 아이들만이 학교를 다니며,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50% 이상의 의료시설은 파괴 되었고, 냇을 잃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절반은 실항민이 되었습니다. *살수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월호와 동일)

24일(일)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모든 사우디인들은 무슬림에 속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이슬람을 떠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깁니다.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신앙이 발각되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종교경찰을 피해 숨죽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우디 내 무슬림배경의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5일(월) 이라크(Iraq)

지난 38년 동안 이라크는 계속된 전쟁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라크를 그들이 지속적으로 머물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고통과 분노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나라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6일(화) 모리타니아(Mauritania)

사하라사막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모리타니아 시민권이 주워지지 않아 ‘나라 없는 사람들’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난 비-무슬림 자녀들은 출생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리타니아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어린이들에게 하루속히 시민권이 부여되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받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7일(수) 레바논(Lebanon)

레바논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밀려드는 수많은 난민들과 적은 일자리로 인해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일자리와 살 곳을 찾아 부모님을 따라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삶과 평범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의에 빠져있는 레바논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꿈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28(목) 리비아(Libya)

리비아에는 나이지리아, 니제르, 가나 등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오래 동안 살아 왔습니다. 이들은 흑인 아프리카 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리비아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살아 오고 있습니다. *이들 예배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의 경제적 공급하심이 이들 가운데 풍성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9일(금) 예멘(Yemen)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수니-시아파간 전쟁을 벌임으로 인해서 계속된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의 병원은 거의 운영이 되지 않거나 폐쇄 되었고, 물과 음식은 부족합니다. 또한 연료는 매우 비싸고 구입조차 어렵습니다. 국제 사회가 많은 원조를 보내고 있지만, 주로 무슬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원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달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0일(토)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